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33.45	↑ 코스닥	773.81
	(+10.16)		(+3.55)
↓ 금리 (미국 9년)	2.906	↑ 환율 (원-달러)	1360.60
	(-0.032)		(+4.70)

## 배터리업계, 美 AMPC 의존도 심화... 자생력 약화 우려

〈첨단세액공제〉

전기차 캐즘에 배터리 화재까지 배터리사 3분기 실적부진 예상 속 LG엔솔 등 AMPC로 손실 만회 ESS·BaaS 등 경쟁력 강화 분주

배터리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세액공제(AMPC)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AMPC는 침체된 시장 속에서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업계 전반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MPC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다. 셀은 1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1kWh당 10달러씩의 혜택을 준다. 이에 힘입어 국내 배터리사들은 IRA 시행 이후 미국 현지 생산거점 구축에 나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사들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과 잇따른 배터리 화재 여파로 3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483억원, 6조 877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영업이익은 38.7%, 매출은 16.4% 감소한 수치다. 회사는 해당 기간동안 AMPC 혜택으로 4660

억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제외하면 영업손실은 177억원이다. 지난 2분기 AMPC를 제외한 적자 252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손실 규모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AMPC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SDI는 북미에 생산 기지 없어 상대적으로 AMPC 수혜가 적다. 다만 팩 법인이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546억원의 AMPC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 아울러 4분기 말 북미 스텔란티스 합작법인(JV)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AMPC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1천 69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8%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SK온 또한 AMPC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1분기 385억원에서 2분기 111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미국 판매량 회복에 힘입어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에는 공장 가동률 하락,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460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IRA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IRA 시행에



북한,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끝내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뉴시스

발맞춰 북미 현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현재 AMPC 의존도가 커진 국내 배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사들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차 의존도를 줄이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는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하기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제주 관광사업화 적극 지원”

尹, 제주도 29번째 민생토론회 제주 신항·제2공항 신속 건설 자연·문화유산 보전·발전 약속



전을 언급했다.

우선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충되고,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통관광·에너지·정주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의 제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하늘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제주도민, 기업인, 연구자, 해녀, 지방시대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며, 이날 제주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순회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제주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

이어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여겠다”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그린수소(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 실증사업엔 2026년까지 5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추진한다. /서예진 기자 syj@

## 주택연금 가입자 3명 중 2명이 수도권 거주

주택연금 가입 ‘수도권 쏠림’ 심각 비수도권 거주자 가입 유인 필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 은퇴자의 노후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비수도권 거주자의 가입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총 13만 36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6만 1424명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나온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 당시 주택 가격에 따른 금액을 매달 받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지급 약정액을 보전해주는 반면, 상승 시에는 기지급액을 상환해 주택을 보전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10만 1027명(가입 유지 기준) 중 67.6%(6만 8252명)은 수도권에 거주자였다.

실제 서울·경기 지역의 월평균 지급액은 166만원에 달해, 지난해 국민연금 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적정 생활비인 16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월평균 지급액은 103만원 수준이었다. 지급액이 가장 적

은 전남(68만원)과 가장 많은 서울(225만원) 간의 차이는 3배 이상 벌어졌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비수도권보다 높아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어 수도권의 가입률이 더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3.4%, 경기도가 8.1%, 인천이 4.9%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돌려받지 못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및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연 보증료(1%), 기지급된 연금액에 대한 이율 등을 고려해도 주택 가격 상승분이 더 커, 주택연금 해지 부담이 크지 않았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여정 “韓 군부가 평양상공 침범 주범... 증거 확보”  
▲ 감사원장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중대 범죄’라 판단 안 해” /사진 뉴시스

▲ 제주 추자도, 내년 1월 ‘국토외곽 먼서’ 지정... “정주여건 지원”  
▲ 한-프랑스 인도태평양대화 발족... 한미일 이어 두번째



▲ 홍준표, 한동훈 겨냥 “당 분열 가속하는 용병 정치 손절해야” /사진 뉴시스  
▲ ‘기생집’ 발언 논란 사과한 양문석 “평혜할 의도 전혀 없었다”